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김수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Learning F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Soo Hyun Kim
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고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AMOS 24.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그릿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그릿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의 학습몰입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교생활적응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생활지도나 상담 등에 활용되고 학교 부적응 학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academic stress, determination, and learning flow of high school adolescents upon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attempted to shed light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termination and learning f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cademic stress of the adolescent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determination. Second, the academic stress of the adolescent had a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learning flow. Third, the academic stress of the adolescent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Fourth, the determination of the adolescent would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Six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the adolescent, determination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Seven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the adolescent, learning flow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verall, important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that would be useful in counseling or student guidance and prevent students from failing in school adaptation by seeking strategies for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reducing stress.

Keywords : Adolescent, Academic Stress, Adaptation to School Life, Grit, Learning Flow

*Corresponding Author : Soo Hyun Kim(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email: sshh899@nate.com

Received April 16, 2024

Revised May 31, 2024

Accepted June 7, 2024

Published June 30, 2024

1. 서론

청소년 시기는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인한 학력중심의 경쟁으로 인하여 더 심한 스트레스와 적응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자신과 또래가 경쟁하며 보내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발달과업과 더불어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시기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의 학업은 스트레스의 요인 중 하나로 부모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의 학업 성취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 즉, 학업스트레스는 학습에 대한 거부, 어려움 등 과중한 정신적 부담으로 느끼게 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대부분을 교사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학교 안에서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한편,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습자가 학업에서 성취를 보이고 학교생활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화롭고 성공적인 관계를 이어감에 따라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를 통한 학교규범에 순응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2],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학업포기, 우울증, 자신감 감소, 대인관계능력저하, 자살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4].

또한 학습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성, 즐거움, 학습경험, 자아존중감에 대한 향상의 경험을 통해 학습이 즐겁다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학습몰입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 조절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스스로 학습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능력이 낮아져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5].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습몰입은 학습과정에서 몰입을 경험하는 것으로 고차원적인 학습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집중과 능동적 참여를 촉발시켜주는 심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학습몰입의 경험이 부족할 경우 청소년은 학습에 대하여 수동적이게 되고, 더 나아가 학업을 지루해하며, 학업중도포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결국 자신에 대한 전망과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통해 학교생활의 부적응이 일어날 것이다[7,8]. 이처럼 청소년으로서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 성장과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리한 강요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지 않고 대안 없이 방치한다면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강한 투지와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및 도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목표를 위한 열정과 인내를 나타낸다[9,10]. 또한 그것은 생동감과 행동을 지니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11]. 즉, 그것이 보여주는 심리적인 요인은 성공적인 학업과 능동적인 수행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정림과 권대훈(2016)의 연구에서도 그것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 그것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을 낮추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조선휘(2019)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혔다[13]. 또한 최미경(2016)의 연구에서는 그것이 친구, 교사와의 관계 및 수업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힘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염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확인하였다[14].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학업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주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이고 능동적인 학업수행을 도와주는 학습몰입과 역경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학업적 보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그것과 학습몰입이 보호요인으로 연구한 사례는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습몰입과 그것의 역할을 규명한다면 청소년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의 경우 생활사건의 갑작스러운 발생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평소 생활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긴장, 사소한 일 등과 같은 일상적 사건에서 스트레스는 빈번하게 일어난다[15].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에게 학업은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학업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학업에 관한 과도한 부

담이 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임을 규명한 바 있다[16].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이 학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진로와 연관되어 학업성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이 대인관계, 학교의 기준 및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에 관한 흥미나 규범준수까지 포함하는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17].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생활을 통해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교육적인 환경에 학생들 스스로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 및 환경 등을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것이라 보고, 이에 잘 적응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에 대한 태도나 감정, 동기가 긍정적이므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학업 성적이 증진되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학교 및 사회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18]. 또한 학교생활적응은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생활, 학교수업, 학교 내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의 환경 등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교상황의 가능성을 신중히 살피어 학습자의 요구를 잘 조절하는 시도라고 보았다[19]. 학교생활적응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학급생활태도, 학습생활 태도, 친구에 대한 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로 나뉘이기도 하며[20], 생활전반, 대인관계, 수업활동, 교육 환경,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사회적지지 만족감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21].

2.3 그것

학업성취 및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단기 목표 성취와 연관이 있었다. 그것은 장기목표 성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Duckworth 외(2007)에 의해 소개되었다[22]. 또한, 지능이나 능력이 수행을 성공적으로 예측한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장기간 지속되는 연습이 수행에 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되면서[23,24], 그것은 성취와 관련되는 주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21세기 건강한 발달과업과 전 생애에 걸친 심리발달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끄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25].

그것은 단일개념이 아닌 다양한 구성요소가 포함된 복합개념이므로, 이를 해석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여러 의

견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Thaler와 Koval(2015)은 그것이 근성과 회복탄력성, 진취성, 끈기가 합해진 개념이라고 보았으며[10], Goodwin과 Miller(2013)의 연구에서는 목적지향성, 동기, 자기통제, 긍정적 마인드셋이라고 정의했다[26]. 국내의 경우에도 김주환(2013)은 마음의 근력으로써 그것을 해석했으며, 자기조절력, 자기동기력, 대인관계력을 하위변인으로 포함하였다[27].

2.4 학습몰입

몰입이란 활동 그 자체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어떤 것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28]. 몰입은 행위와 의식의 통합, 도전과 능력의 조화, 구체적인 피드백, 명확한 목표, 통제감, 과제에 관한 집중, 시간 감각의 왜곡, 자의식의 상실, 자기목적적 경험 등과 같은 9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29], 이를 토대로 Csikszentmihalyi(1990)는 학습자가 자기의 학습 과제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상의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심리상태라고 하였으며[29], 박성익과 김연경(2006)의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을 학습과제의 해결이나 어떤 학습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여 과제 해결만을 위해서 정신과 정 및 활동을 하나로 모으는 최상의 집중 과정으로 정의하였다[30]. 이러한 학습몰입은 학습에 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높은 학업성취를 이끌어내는 것과 같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학습자로부터 학습에 대해 정복감, 성취감 등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31].

2.5 선행연구

2.5.1 학업스트레스와 그것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특성상 학년이 올라 갈수록 그것은 낮아진다[32]. 이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스트레스와 성취압박이 높아져 열정, 흥미 등이 낮아지기 쉽고, 내재적 동기가 저하되는 현상과 관련된다[33]. 학업스트레스와 그것의 관계를 밝힌 국내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학업스트레스가 그것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34]. 다시 말해, 높은 학업스트레스는 노력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것 수준을 감소시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35]. 즉, 학업스트레스가 그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5.2 학업스트레스와 학습몰입

학습몰입을 예측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변인 중 다른 하나가 스트레스이다.

김중운과 김효은(2012)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습몰입 수준이 낮아짐을 검증하였다[36]. 김연정과 장현아(2020)는 학업스트레스인 정서신체반응 스트레스와 기대비교상황 스트레스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대비교상황 스트레스만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홍세훈(2021)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습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37], 간호대학생 중 내적 통제소재가 낮고,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학습몰입 수준이 낮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중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5.3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청소년들은 일상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동시에 학업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심할수록 학교생활적응 능력이 낮아지는 결과[38]와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는 부적 상관을 보여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어렵다[39]. 즉, 스트레스 수준은 학교생활적응을 낮추고[40],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주요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41]. 또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며[42],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3]. 그러므로 학업과 관련되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겪으며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2.5.4 그릿과 학교생활적응

그릿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학교환경에서 그릿이 높은 학생일수록 적응을 잘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이는 그릿이 사회적·물리적 환경 내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 투쟁과정의 의미로서 더욱 적극적인 측면을 갖는다는 연구와 일치한다[44]. 그릿은 학생 자신이나 학습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포함하며 학생들의 학습수행 방식 및 학업 역경에 맞서 자신의 노력 여부에 영향을 준다[45]. 따라서 그릿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계가 있고 학업성취를 유

의하게 설명한다는 사실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46].

2.5.5 학습몰입과 학교생활적응

학습몰입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학습몰입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박선영(2008)은 몰입 경험이 그들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학창 시기에 경험한 삶의 만족은 몰입 경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47]. 이숙정(2011)의 연구에서 학습몰입은 학교생활의 적응 및 부적응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 학습몰입은 대학생활적응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48]. 또한 정은이(2012)는 학교생활 중의 재미와 몰입 경험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49]. 따라서, 학생들의 몰입 경험의 빈도 및 강도는 그들의 학업, 성취감, 더 나아가는 학교생활 전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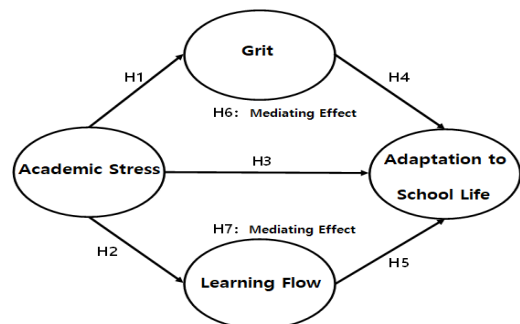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H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그릿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청소년의 그릿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청소년의 학습몰입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H7: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각 학교의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기에 앞서 먼저 연구 참여 동의서를 확인한 뒤,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410부를 배포하였으나 397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이나 미응답자 10부를 제외한 387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195명(50.4%), 2학년 98명(25.3%), 3학년 94명(24.3%)이다. 남학생은 156명(40.3%), 여학생은 231명(59.7%)로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3.3.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청소년이 학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수준으로서 박병기와 박선미(2012)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50]를 바탕으로 최은희(2016)가 사용한 척도[51]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성적스트레스 5문항, 수업스트레스 5문항, 공부스트레스 5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0.955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2 그릿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와 Quinn(2009)

등이 타당화한 Short Grit Scale(Grit-S)[52]을 국내에서 김희명과 황대향(2015)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53]를 사용하였다. '인내'로 설명되는 노력의 지속성과 '열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심의 일관성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54]. 노력의 지속성 및 관심의 일관성은 각각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심의 일관성 문항은 모두 역코딩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그릿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노력의 지속성 0.716, 관심의 일관성 0.799, 그릿 전체 0.857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3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형근(2010)이 제시한 학습몰입 척도[55]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학습활동과 인식의 통합 9문항, 학습과제에 대한 집중 8문항, 도전적 과제와 능력의 조화 6문항, 명확한 학습목표 8문항, 시간감각의 왜곡 4문항,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습몰입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학습과제에 대한 집중 0.644, 학습활동과 인식의 통합 0.800, 명확한 학습목표 0.861, 도전적 과제와 능력의 조화 0.652, 시간감각의 왜곡 0.776, 학습몰입 전체 0.894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3.4 학교생활적응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박진화(2017)가 사용한 척도[56]로 학교규칙 5문항, 학습활동 5문항, 교사관계 5문항, 교우관계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학교규칙 0.847, 학습활동 0.743, 교사관계 0.814, 교우관계 0.891, 학교생활적응 전체 0.904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AMOS 24.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 학교생활적응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성 검증에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부트스트래핑 분석,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과 학교생활적응의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고, $X^2=1206.871$, $df=289$, $GFI=0.857$, $CFI=0.914$, $TLI=0.903$, $IFI=0.914$, $RMR=0.039$, $RMSEA=0.071$ 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 기준은 GFI, CFI, TLI, IFI는 0.8 이상, RMR 및 RMSEA의 경우는 각각 0.05와 0.08 이하로 나타날 경우 양호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는 기준에 부합하여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요인부하량(λ)의 경우 0.541~0.884로 나타나 각 항목에 대한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드러나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이 확인되었다.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R	AVE	
Academic Stress	→ AS 1	.697	Fix	-	.982	.789
	→ AS 2	.771	.056	18.457**		
	→ AS 3	.698	.069	16.777**		
	→ AS 4	.681	.068	16.391**		
	→ AS 5	.812	.059	19.415**		
	→ AS 6	.710	.066	17.067**		
	→ AS 7	.807	.052	19.284**		
	→ AS 8	.836	.055	19.964**		
	→ AS 9	.808	.055	19.303**		
	→ AS 10	.704	.069	16.921**		

	→ AS 11	.802	.055	19.157**		
	→ AS 12	.884	.058	21.034**		
	→ AS 13	.845	.057	20.160**		
	→ AS 14	.859	.056	20.462**		
	→ AS 15	.687	.076	16.512**		
Grit	→ PE	.878	Fix	-	.837	.720
	→ CA	.816	.068	14.819**		
Learning Flow	→ FL	.774	Fix	-	.917	.694
	→ ALR	.723	.055	17.374**		
	→ CL	.541	.073	12.805**		
	→ HCA	.661	.049	15.810**		
Adaptation to School Life	→ DT	.817	.068	19.369**	.903	.702
	→ SR	.622	Fix	-		
	→ LA	.675	.052	8.333**		
	→ TR	.834	.085	15.056**		
	→ PR	.821	.092	15.012**		

*** $p<.001$

$X^2=1206.871$, $df=289$, $GFI=0.857$, $CFI=0.914$, $TLI=0.903$, $IFI=0.914$, $RMR=0.039$, $RMSEA=0.071$

4.2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변수인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는 그릿의 노력의 지속성과 가장 큰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477$, $p<.01$), 그릿의 노력의 지속성은 학교생활적응의 교우관계와 가장 큰 상관을 보였으며($r=0.451$, $p<.01$), 관심의

Table 2. Correl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477**	1										
3	.366**	.717**	1									
4	.266**	.392**	.351**	1								
5	-.247**	.202**	.412**	.512**	1							
6	.345**	.402**	.309**	.445**	.317**	1						
7	-.155**	.302**	.434**	.546**	.590**	.257**	1					
8	.289**	.302**	.255**	.645**	.587**	.520**	.475**	1				
9	.223**	.236**	.247**	.112**	.284**	.084**	.192**	.292**	1			
10	.294**	.426**	.252**	.170**	.308**	.238**	.304**	.275**	.396**	1		
11	.244**	.347**	.380**	.149**	.203**	.275**	.119**	.362**	.539**	.325**	1	
12	-.343**	.451**	.407**	.312**	.182**	.255**	.404**	.330**	.494**	.249**	.682**	1
M	2.30	3.28	3.11	3.45	3.80	3.19	3.65	3.44	3.34	3.27	3.41	3.54
SD	.488	.946	1.034	.647	.659	.868	.592	.812	1.021	.808	.972	1.068
skew	2.149	.007	-.044	-.236	-.234	-.289	-.413	-.330	-.230	-.010	-.276	.025
kurtosis	4.119	-.755	-.644	.149	-.047	-.134	.439	.126	-.060	.168	-.321	-.771

** $p<.01$

1: Academic Stress, 2: Persistence of Effort, 3: Consistency of Attention, 4: Focus on your Learning Tasks, 5: Integration of Learning Activities and Recognition, 6: Clear Learning Objectives, 7: Harmony of Challenging Tasks and Abilities, 8: Distortion of Time Sense, 9: School Rule, 10: Learning Activity, 11: Teacher Relationship, 12: Peer Relationship

일관성은 학습몰입의 도전적 과제와 능력의 조화와 가장 큰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0.434, p<.01$). 학습몰입 중 시간감각의 왜곡은 학교생활적응의 교사관계와 가장 큰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0.362, p<.01$). 왜도와 침도의 경우 왜도는 절대값 3 미만, 침도는 절대값 6 미만으로 나타나 본 연구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름을 알 수 있다.

4.3 연구모형 결과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행하였다. 먼저 연구모형 적합도의 경우 $X^2=1308.078, df=292, GFI=0.845, CFI=0.904, TLI=0.894, IFI=0.905, RMR=0.041, RMSEA=0.075$ 로 나타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57].

본 연구가설 검증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그릿($\beta=-0.266, p<.001$), 학습몰입($\beta=-0.149, p<.001$), 학교생활적응($\beta=-0.38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릿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477, p<.001$), 학습몰입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0.176, p<.001$).

Table 3.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t-value	sig.
H1	Academic Stress	→	Grit	-.266	.088	-5.876***	Sig.
H2	Academic Stress	→	Learning Flow	-.149	.053	-3.343***	Sig.
H3	Academic Stress	→	Adaptation to School Life	-.249	.068	-5.694***	Sig.
H4	Grit	→	Adaptation to School Life	.477	.042	8.969***	Sig.
H5	Learning Flow	→	Adaptation to School Life	.176	.056	4.139***	Sig.

*** $p<.001$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과 학습몰입에 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연구모형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그리고 총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p<.001$), 간접효과 및 총효과 역시 유의수준 $p<.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그릿과 학습몰입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Results of indirect effect analysis of grit and learning flow through bootstrapping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P
H6 H7	Academic Stress	Grit Learning Flow	Adaptation to School Life	-.249***	.000	.101**	.004	-.148***	.000

*** $p<.001, **p<.01$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그릿과 학습몰입에 관한 매개효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58],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그릿(Z-value=-4.947, $p<.001$)과 학습몰입(Z-value=-2.595,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Analysis results of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learning flow through Sobel-test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Z-value	P
H5	Academic Stress	Grit	Adaptation to School Life	-4.947***	.000
H6		Learning Flow	School Life	-2.595**	.009

*** $p<.001, **p<.01$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AMOS 24.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는 그릿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그릿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그릿에 부정 영향을 미친 연구[34,35]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학업스

트레스가 클수록 학업에 대한 열의와 인내심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짐으로써 그것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업스트레스 대처방법으로는 명상하기, 억눌린 감정 풀어주기, 가치와 목표를 적절히 변화시키기, 스트레스에 수반되는 감정을 관리해 주기 등이 제안되었으나[59], 무엇보다도 학업스트레스의 심각성에 관한 부모와 사회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몰입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6,36,37].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면 학습몰입을 방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부정적으로 동기화된 믿음을 활성화시켜 학교 적응을 서서히 파괴할 수 있으므로[60] 이러한 청소년의 학습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이 부적 영향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38-40]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훈련과 대처기술이 필요하며 사회적지지 등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완화방안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의 그릿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그릿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의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그릿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도연(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46].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내에서의 교우관계, 그리고 학교환경 전반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고 균형 있게 조절하는 과정으로서 학업적 그릿이 높은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학습몰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습몰입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의 학습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짐

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48,49]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몰입을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을 즐기거나 재미를 느낄 때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기를 원치 않을 때 느끼는 경험이므로 학습에 관한 몰입 경험이 있게 되면 학습에 관한 재미 자체가 내적 동기로 발현되어 학교생활을 하는데 적응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에 관한 몰입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그릿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더 낮은 학교생활적응을 보이며, 더 낮은 그릿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나 학업, 대인관계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에게 그릿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긍정적인 신념으로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힘이 된다[61]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그릿은 중요한 긍정적 신념임을 시사한다.

일곱 번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더 낮은 학교생활적응을 보이며, 더 낮은 학습몰입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몰입은 긍정심리자원과 함께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여 학교생활적응을 더욱 향상시켜주며, 개인은 긍정 정서에 관한 인지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62]는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학습몰입은 학업스트레스를 완화시켜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학업스트레스와 그릿 및 학교생활적응에서 그릿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꿈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나 다양한 학업적 요인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에 있어 그들의 외부 환경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내부적 요인 즉, 그릿을 살피고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적응을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개인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학업스트레스와 학습몰입 및 학교생활적응에서 학습몰입은 학습과제에 관한 집중, 학습활동과 인식의 통합, 명확한 학습목표 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몰입을 증진시킬 필

요성이 있다.

셋째, 고등학생들은 외모와 성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내신관리 및 삼급학교 진학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훈련이나 대처기술 등이 필요하며, 사회적지지 등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완화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기반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았으나, 다양한 심층면접이나 질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습몰입,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이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 상담 및 생활지도 등에 활용되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예방하는데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 [1] Y. H. Kim, S. J. Kim,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ubjective happiness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14, No.4, pp.145-162, 2022. DOI: <http://dx.doi.org/10.36431/JPE.14.4.8>
- [2] S. R. Kwak,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Welfare Panel Study Conference Papers*, Vol.15, pp.175-196, 2022.
- [3] M. S. Kim,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 Multiple additive moderation effects of parental efficacy and self-esteem.",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Vol.13, No.3, pp.95-117, 2023. DOI: <http://dx.doi.org/10.35281/cms.2023.08.13.3.95>
- [4] H. J. Han, J. M. Lee, "A study of school violence policy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 Focusing on cases in the wee project essay contes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40, No.5, pp.29-59, 2022. DOI: <http://dx.doi.org/10.22553/keas.2022.40.5.29>
- [5] S. H. Kang,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classroom climate, learning flow,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11, pp.759-781, 2015. DOI: <http://dx.doi.org/10.13000/ifmse.2012.24.6.935>
- [6] Y. J. Kim, H. A. Chang,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emotion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learning flow.",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Vol.12, No.2, pp.145-162, 2020. DOI: <http://dx.doi.org/10.35185/KJET.12.2.2>
- [7] Y. M. Lee, B. G. Bak,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Stress,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early youth in gyeonggi province.", *Korean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Vol.15, No.2, pp.1-25, 2019. DOI: <http://dx.doi.org/10.51636/JOTD.2019.08.15.2.1>
- [8] H. I. Cho, "The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optimism, learning flow,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7, No.4, pp.783-803, 2013.
- [9] H. W. Chung, H. J. Jeon, A. R. Kim,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terms of the grit and academic engagement of adolescents and testing the effect of relevant fa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32, No.1, pp.117-146, 2021. DOI: <http://dx.doi.org/10.14816/sky.2021.32.1.117>
- [10] L. K. Thaler, R. Koval, *Grit to great: How perseverance, passion, and pluck take you from ordinary to extraordinary*. NY: Random House Inc, 2015.
- [11] S. Y. Han, Y. H. Park, "Differen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behavioral control and self-determination by grit typ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30, No.1, pp.73-101, 2018. DOI: <http://dx.doi.org/10.17927/tkiems.2018.30.1.73>
- [12] J. L. Lee, D. H. Kwon,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ocus of control, mindset,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11, pp.245-264, 2016.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6.11.23.11.245>
- [13] S. H. Cho, "Grit's control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exhaus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Forum For Youth Culture*, No.57, pp.145-169, 2019. DOI: <http://dx.doi.org/10.17854/ffyc.2019.01.57.145>
- [14] M. K. Choi, "The effect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on high school male students' school related adjustments: The mediation effect of gri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3, pp.75-102, 2016.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6.03.23.3.75>
- [15] H. J. Han,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ceived academic stress of high school student.",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Vol.16, No.3, pp.103-117, 2022. DOI: <http://dx.doi.org/10.18015/edumca.16.3.202208.103>
- [16] D. W. Kim, H. Y. Park, K. Y.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cademic support, emotional support, and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The moderating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29, No.1, pp.21-41, 2022.

- DOI: <http://dx.doi.org/10.15284/kjhd.2022.29.1.21>
- [17] M. E. Woolley, A. Grogan-Kaylor, "Protective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Promoting positive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s*, Vol.55, No.1, pp.93-104, 2006.
DOI: <http://dx.doi.org/10.1111/j.1741-3729.2006.00359.x>
- [18] H. K. Kim, "School adaptation for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Schools and Teaching*, Vol.8, No.1, pp.53-84, 2023.
DOI: <http://dx.doi.org/10.23041/jsst.2023.8.1.003>
- [19] H. S. Kim, D. G. Lee, B. H. Bae,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a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adaptive defense mechanis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6, pp.2641-2656, 2012.
DOI: <http://dx.doi.org/10.15703/kjc.13.6.201212.2641>
- [20] S. M. Shin, K. H. Jeong,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al abuse on school life adjustment among high-school students: Based on the general strain theory, the mediating effect of sexual materials usage frequency and addiction level.",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No.52, pp.7-34, 2016.
DOI: <http://dx.doi.org/10.16975/kifsw.2016..52.001>
- [21] J. I. Park, J. H. Yang,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basic needs and conflict resolution methods on school life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Vol.7, No.3, pp.415-429, 2015.
- [22]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6, pp.1087-1101, 2007.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92.6.1087>
- [23] Y. W. Son, *Experts, their own rules*. Seoul: samtoh, 2005.
- [24] N. Charness, M. Tuffiash, R. Krampe, E. Reingold, E. Vasyukova, "The role of deliberate practice in chess expertise.",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Vol.19, No.2, pp.151-165, 2005.
DOI: <http://dx.doi.org/10.1002/acp.1106>
- [25] M. R. West, M. A. Kraft, A. S. Finn, R. E. Martin, A. L. Duckworth, C. F. Gabrieli, J. D. Gabrieli, "Promise and paradox: Measuring students' non-cognitive skills and the impact of schooling.",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Vol.38, No.1, pp.148-170.
DOI: <http://dx.doi.org/10.3102/0162373715597298>
- [26] B. Goodwin, K. Miller, "Grit + talent= student success.", *Educational Leadership*, Vol.71, No.1, pp.74-76, 2013.
- [27] J. H. Kim, *Grit*. Gyeonggi: Sam & Parkers, 2013.
- [28] M. Csikszentmihalyi,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1975.
- [29] M. Csikszentmihalyi,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4, No.1, pp.93-94, 1990.
DOI: <http://dx.doi.org/doi.org/10.1080/0022216.1992.11969876>
- [30] S. I. Park, Y. K. Kim, "An inquiry on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flow factors, flow level, achievement under on-line learning environment.",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14, No.1, pp.93-115, 2006.
- [31] S. J. Jeong, "Relationships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motivation, and learning flow of adolescents.", *Counseling Evaluation Research*, Vol.1, No.1, pp.37-52, 2008.
- [32] J. U. Han, S. M. Park,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parental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n their gri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0, pp.165-182, 2018.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8.18.20.165>
- [33] W. Y. Shim, "Changes in students' motivation to learn.",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lementary Education*, Vol.14, No.3, pp.19-44, 2001.
- [34] K. H. Yoo, Y. Choi,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Grit's mediation effec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0, No.5, pp.635-650, 2019.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0.5.45>
- [35] J. M. Lee,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academic burnou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learned helplessness*. Master's Thesis, Chinju National Education University of Korea, 2019.
- [36] J. W. Kim, H. E. Kim, "The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and stress to children's learning flow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2, No.1, pp.97-118, 2012.
- [37] S. H. Hong,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major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with premenstrual syndrom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8, pp.179-190, 2021.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21.21.18.179>
- [38] H. S. Park,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studies and ego-resilience on school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of Korea, 2014.
- [39] S. E. Park,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in upper elementary school graders*. Master's Thesis, Gyeongin University of Korea, 2014.
- [40] H. J. Kim, S. A. Lee,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Comparison of single parent family and two-parent family.", *Youth Welfare Research*, Vol.13, No.3, pp.215-241, 2011.
- [41] M. S. Kim, "Impact of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Psychotherapy Association*, Vol.1, No.2, pp.53-67, 2009.
- [42] B. M. Kim, *The effects of daily stress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2014.

- [43] E. S. Ka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daily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i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of Korea, 2009.
- [44] Y. R. Kim, "An analysis on the validation of school learning motivation scale(A) & school-related coping scale(B) and relations between (A) & (B).",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17, No.17, pp.3-37, 2000.
- [45] D. S. Yeager, C. S. Dweck, "Mindsets that promote resilience: When students believe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can be developed.", *Educational psychologist*, Vol.47, No.4, pp.302-314, 2012.
DOI: <http://dx.doi.org/10.1080/00461520.2012.722805>
- [46] D. Y. Kim, *Difference between school adaptation, hope, and laning motivation based on mindset in adolescent*. Master's Thesis, Yeongnam University of Korea, 2017.
- [47] S. Y. Park,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ommitment, emotion, and adjustment between two college students.", *Social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7, No.1, pp.41-60, 2008.
- [48] S. J. Lee,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5, No.2, pp.235-253, 2011.
- [49] E. I. Jeong, "The effects of interest and flow on college adjustment.", *Educational Issues Research*, No.44, pp.71-99, 2012.
- [50] B. G. Bak, S. M.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stress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6, No.2, pp.563-585, 2012.
- [51] E. H. Choi, *The impact of academic stress of high school students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 mediating effect of a mental state and the effect of controlling parenting attitude*. Doctoral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of Korea, 2016.
- [52] A. L. Duckworth, P. D. Quin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91, No.2, pp.166-174, 2009.
DOI: <http://dx.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 [53] H. M. Kim, M. H. Hwang, "Validation of the korean grit scale for children.", *The Journal of Education*, Vol.35, No.3, pp.63-74, 2015.
DOI: <http://dx.doi.org/10.25020/je.2015.35.3.63>
- [54] J. S. Park, *The effects of attributional feedback o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indset, grit and self-control*.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17.
- [55] H. G. Park,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the learning f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 motivation factors and self-directed learning*.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of Korea, 2010.
- [56] J. H. Park, *The effect of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experiential activity on adolesc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 Mediating effects on study time management and study behavior control*. Doctoral Thesis, Sungsan Hyo University of Korea, 2017.
- [57] H. S. Le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AMOS 24*. Seoul: Jibhyeonjae, 2017.
- [58]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59] P. Zarei, T. Hashemi, S. Sadipoor, A. Delavar, Z. Khoshnevisan, "Effectiveness of coping strategies in reducing student's academic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No.14, pp.1057-1061.
DOI: <http://dx.doi.org/10.1007/s11469-016-9691-1>
- [60] C. V. Quiroga, M. Janosz, S. Bisset, A. J. S. Morin, "Early adolescent depression symptoms and school dropout: Mediating processes involving self-reported academic competence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05, No.2, pp.552-560, 2013.
DOI: <http://dx.doi.org/10.1037/a0031524>
- [61] J. H. Lim, K. M. Kim, J. E. Song, Y. K. Na, "The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hopes on the school adjustment levels of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5, No.1, pp.29-57, 2014.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4.25.1.29>
- [62] G. E. Richardson, , "The metatheory of resilience and resilienc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58, No.3, pp.2307-321, 2002.
DOI: <http://dx.doi.org/10.1002/jclp.10020>

김 수 현(Kim, Soo Hyun)

[정회원]



- 2017년 3월 ~ 2023년 2월 : 박사 졸업
- 2023년 ~ 현재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 2022년 ~ 현재 : 서정대학교 강사

<관심분야>

청소년, 진로, 학업